

반도체 코리아의 힘

# 풀HD 영화 124편을 1초에 초고속 HBM2E D램 개발



SK하이닉스, 이전모델比 속도 50% ↑  
3.6Gb 속도로 초당 460GB 데이터 처리

SK하이닉스가 D램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SK하이닉스는 12일 'HBM2E'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HBM2E는 처리속도를 D램보다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HBM D램의 차세대 제품이다. 이전 규격인 HBM2보다 50% 빠르다.

SK하이닉스 HBM2E는 3.6기가비트(Gbit/s) 처리 속도를 구현한다. 1024개의 정보출입구(I/O)로 초당 460GByte 데이터가 처리된다.

풀HD급 영화 124편 분량을 1초만에 처리하는 속도다. 16Gb 칩 8개를 TSV 기술로 수직연결해 저장 용량도

16GB나 된다.

HBM2E는 고성능 GPU와 머신러닝, 슈퍼컴퓨터 등에 적합한 고사양 메모리다. 모듈 형태로 만들어 메인보드에 연결하기보다는 GPU 등과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 붙여서 장착해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SK하이닉스 HBM사업전략 전준현 담당은 "SK하이닉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HBM D램을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왔다"며 "HBM2E 시장이 열리는 2020년부터 본격 양산을 개시해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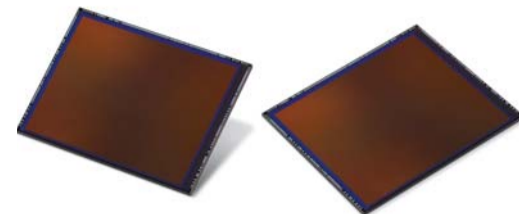


초고속 D램인 HBM2E /SK하이닉스

# 이미지센서도 초격차 시동 1억 화소로 사람 눈과 경쟁



삼성-화웨이 '아이소셀 브라이트 NHX' 이달중 양산 돌입... 화웨이 제품 탑재



1억800만화소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에서도 초격차에 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최근 1억800만 화소 '아이소셀 브라이트 NHX'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달 중으로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픽셀 크기 0.8μm(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하며, 모바일 이미지센서 중에서는 가장 화소가 높다.

삼성전자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중국 화웨이와 협력해 새 이미지센서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 부품은 우선 화웨이의 새로운 플래그십에 탑재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1.33인치 크기 센서로 빛을 받는 면적을 넓히고, 4개 픽셀을 하나처럼 활용하는 테트라셀 등을 적용해 소형화와 함께 품질도 높였다. /김재용 기자

빛에 따라 ISO를 알아서 작동하는 '스마트 ISO'도 적용해 노이즈도 최소화했다. 동영상은 6K에 1초당 30프레임까지 녹화할 수 있어 전문 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삼성전자 시스템 LSI사업부 센서사업팀장 박용인 부사장은 "인간의 눈과 같은 초고화질로 세상을 담은 모바일 이미지센서 개발을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지속했고, 그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며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는 '1억800만 화소'와 '테트라셀', '아이소셀 플러스' 등 삼성전자의 기술이 집약되어 고객들에게 한 차원의 높은 섬세한 이미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삼성전자, 대용량 신형 에어드레서 출시

삼성전자는 14일 에어드레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대용량 에어드레서를 추가하면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는데 주력했다. 전작보다 상하의 각각 2벌 더 많은 5벌을 넣을 수 있다. 업계 최초 긴 옷 케어존도 마련했다. 143cm 길이 긴 옷도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준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14일 에어드레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대용량 에어드레서를 추가하면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는데 주력했다. 전작보다 상하의 각각 2벌 더 많은 5벌을 넣을 수 있다. 업계 최초 긴 옷 케어존도 마련했다. 143cm 길이 긴 옷도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준다. /삼성전자

## 휴가없는 車노사 갈등... 夏鬪파업 갈림길

현대차 노조, 오늘 쟁대위 개최  
교섭재개·파업여부 등 논의  
한국지엠은 8차 임단협 교섭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해 노조와 갈등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파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지엠 노조는 같은 날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튿날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사측과의 교섭 재개 여부와 파업 여부 및 일정 등을 논의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50일 가까이 16차례에 걸쳐 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대비 70.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8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현재 추석 전까지 노조의 집중 투쟁이 예상된다. 한국지엠 노사는 13일 8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노조는 앞서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에서 파업 여부를 선불리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게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 7월 25일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조합원 파업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데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6월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당시 조합원 8055명 가운데 74.9%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현재 기본급 12만3526원(5.7%, 호봉승급분 제외), 통상임금의 250% 성과급 지급, 650만원 격려금, 지난해 축소된 임직원 복리후생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천 부평2공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 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에 대한 협약도 요구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삼성, '갤럭시10' 체험 스튜디오 오픈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130곳 열어  
밀레니얼 신진 아티스트와 콜라버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10 5G'와 '갤럭시 노트10+ 5G'를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를 서울 종로구 익선동, 영등포 타임스퀘어, 강남 파미에스테이션, 인천 스퀘어원, 부산 서면 등 전국 핫플레이스와 삼성 메가 스토어 130여 곳에 10일 오픈했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밀레니얼 신진 아티스트와 콜라버레이션을 통해 갤럭시 노트10 5G를 더욱 흥미롭게 만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다.

소비자들은 몸짓 인식으로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S펜'을 비롯해 시원한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누구나 쉽게 전문가 수준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트리플 카메라 등을 체험할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마련된 '갤럭시 스튜디오'가 제스처 인식으로 더욱 새로워진 '스마트 S펜', 혁신적인 카메라 등 더욱 강력해진 '갤럭시 노트10 5G'를 직접 체험해보려는 소비자들로 붐비고 있다. /삼성전자

수 있다. 지역별 갤럭시 스튜디오 소재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갤럭시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영업이익 788억... 471%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3986억원, 영업이익 788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471% 오르며 흑자 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122.8% 증

가한 69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엔진사업은 RSP(국제공동개발) 사업자로서 업계에서의 격상된 지위를 통해 꾸준한 수주를 이어가고, 향후 베트남 공장 안정화를 통해 장기공급계약(LTA)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며

"민수사업들의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K-9 자주포 등 방산사업의 수출확대와 사업인수 효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는 물론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실적 개선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